



제 3 장

여성변호사 현황



제3장 여성변호사 현황

1. 여성변호사 수 추이

가. 개업변호사 현황

[매년 말, 개업변호사 기준]
증감률 : (해당년-전년)×100/전년

연도	변호사 수	여성변호사 수	여성비율 (%)	여성증감률 (%)	연도	변호사 수	여성변호사 수	여성비율 (%)	여성증감률 (%)
1954	280	1	0.4	-	1982	1,098	2	0.2	0.0
1955	293	1	0.3	0.0	1983	1,166	2	0.2	0.0
1956	303	1	0.3	0.0	1984	1,179	2	0.2	0.0
1957	364	1	0.3	0.0	1985	1,320	2	0.2	0.0
1958	361	1	0.3	0.0	1986	1,414	2	0.1	0.0
1959	384	1	0.3	0.0	1987	1,521	2	0.1	0.0
1960	456	1	0.2	0.0	1988	1,666	3	0.2	50.0
1961	491	1	0.2	0.0	1989	1,803	5	0.3	66.7
1962	581	1	0.2	0.0	1990	1,983	10	0.5	100.0
1963	594	1	0.2	0.0	1991	2,258	14	0.6	40.0
1964	635	1	0.2	0.0	1992	2,450	17	0.7	21.4
1965	662	1	0.2	0.0	1993	2,685	23	0.9	35.3
1966	679	1	0.1	0.0	1994	2,852	26	0.9	13.0
1967	687	1	0.1	0.0	1995	3,078	34	1.1	30.8
1968	676	1	0.1	0.0	1996	3,188	38	1.2	11.8
1969	702	1	0.1	0.0	1997	3,364	45	1.3	18.4
1970	719	1	0.1	0.0	1998	3,521	57	1.6	26.7
1971	748	1	0.1	0.0	1999	3,887	72	1.9	26.3
1972	745	1	0.1	0.0	2000	4,228	96	2.3	33.3
1973	785	1	0.1	0.0	2001	4,618	133	2.9	38.5
1974	812	1	0.1	0.0	2002	5,073	170	3.4	27.8
1975	809	1	0.1	0.0	2003	5,586	228	4.1	34.1
1976	819	1	0.1	0.0	2004	6,300	295	4.7	29.4
1977	811	1	0.1	0.0	2005	6,997	391	5.6	32.5
1978	832	1	0.1	0.0	2006	7,602	494	6.5	26.3
1979	890	1	0.1	0.0	2007	8,143	557	6.8	12.8
1980	940	2	0.2	100.0	2008	8,877	622	7.0	11.9
1981	1,013	2	0.2	0.0	2009	9,612	1,013	10.5	62.9

- 1954년부터 1979년까지 26년 동안 등록된 모든 변호사 중 여성 변호사는 고 이태영 변호사 1명으로, 1951년 여성으로서 최초로 고등고시 사법과(제2회)에 합격하여 1954년 서울변호사회 소속으로 변호사 개업을 함. 1952년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서 다른 여성 1인이 합격하였으나 1961년 사망할 때까지 판사로 재직함.
- 1977년 제2호 여성변호사인 강기원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였으나 동년 제1호 여성변호사인 이태영 변호

사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형을 받게 되어 1977년부터 1979년 제3호 변호사가 등록하기까지 여성 개업변호사 수는 줄곧 1명으로 기록됨.

- 여성변호사 수는 2000년까지 100명 미만이었으나, 2001년 100명을 처음 넘어섰고, 2009년에는 전년 대비 62.8%가 증가하여 1,000명 이상을 기록함. 그러나 전체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여전히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나. 최근 10년간 신규 등록자 중 여성변호사 비율

연도	등록자 수	여성 수	여성비율(%)	연도	등록자 수	여성 수	여성비율(%)
2000	396	20	5.1	2005	850	87	10.2
2001	465	31	6.7	2006	778	104	13.4
2002	491	49	10.1	2007	904	78	8.6
2003	585	62	10.6	2008	922	215	23.3
2004	780	136	17.4	2009	874	242	27.7

- 여성등록자 수는 2000년 20명에서 2009년 242명으로 12배가 늘어났으며, 2009년 신규 등록자 중 여성 비율은 27.7%를 기록함.

다.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여성합격자 수 추이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남성	650	818	759	716	763	678	619	657	623	642
	여성	151	173	239	190	246	323	375	354	382	355
	여성비율(%)	18.9	17.5	23.9	21.0	24.4	32.3	37.7	35.0	38.0	35.6

【출처】 법무부

- 사법시험 정원의 확대와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로 여성합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9년 기준으로 전체 합격자 중 35.6%를 기록함.

라. 최근 10년간 판사, 검사 중 여성 비율

[매년 말 기준]

연도	판사 수				연도	검사 수			
	총수	남성	여성	여성비율(%)		총수	남성	여성	여성비율(%)
1999	1,344	1,259	85	6.3	1999	1,112	1,095	17	1.5
2000	1,409	1,313	96	6.8	2000	1,139	1,118	21	1.8
2001	1,489	1,391	98	6.6	2001	1,191	1,162	29	2.4
2002	1,607	1,493	114	7.1	2002	1,269	1,220	49	3.9
2003	1,729	1,593	136	7.9	2003	1,351	1,284	67	5.0
2004	1,856	1,687	169	9.1	2004	1,412	1,325	87	6.2
2005	1,934	1,715	219	11.3	2005	1,465	1,362	103	7.0
2006	2,036	1,764	272	13.4	2006	1,495	1,357	138	9.2
2007	2,295	1,866	429	18.7	2007	1,550	1,370	180	11.6
2008	2,364	1,867	497	21.0	2008	1,618	1,398	220	13.6
2009	2,454	1,895	559	22.8	2009	1,670	1,410	260	15.6

【출처】 판사 : 법원행정처, 검사 :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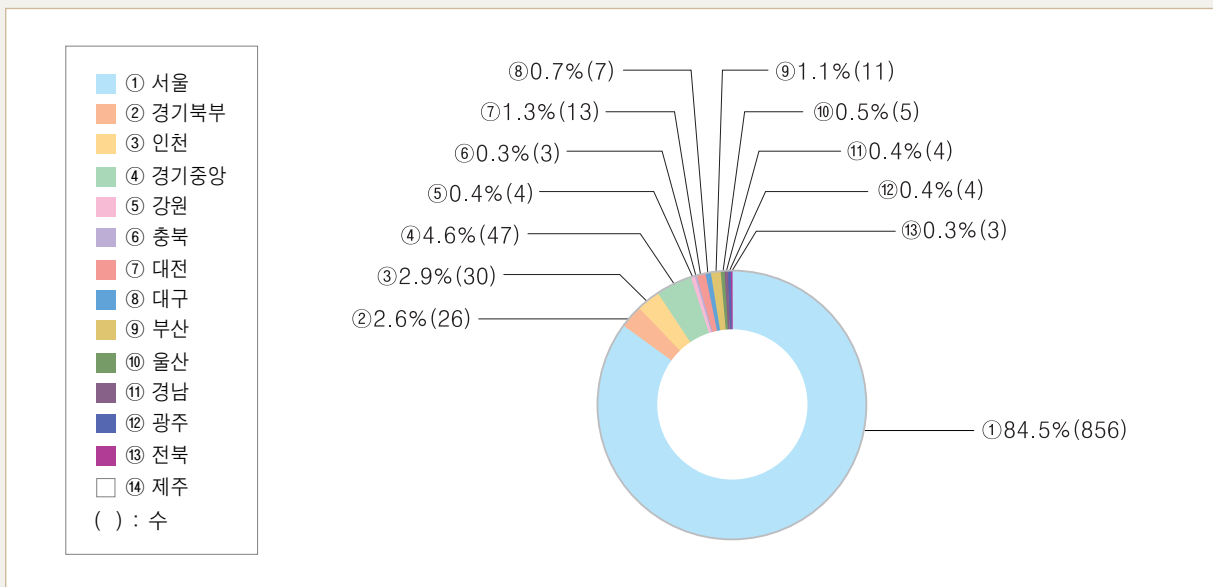
- 사법시험에서 여성합격자 수가 증가하면서 판·검사로 임용되는 여성 수도 증가함. 판사의 경우 1999년 전체의 6.3%를 차지하던 여성비율이 2009년에 들어서는 그 4배에 가까운 22.8%로 증가했고, 검사의 경우는 이보다 더 급증하여 1999년 불과 1.5%에서 2009년에는 15.6%로 10배의 증가율을 보임.
- 여성판사의 수와 비율이 여성검사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지방변호사회별 여성변호사 비율

소속회	변호사 수	여성 수	여성비율(%)	소속회	변호사 수	여성 수	여성비율(%)
서울	6,830	856	12.5	부산	368	11	3.0
경기북부	206	26	12.6	울산	95	5	5.3
인천	299	30	10.0	경남	146	4	2.7
경기중앙	511	47	9.2	광주	221	4	1.8
강원	81	4	4.9	전북	111	3	2.7
충북	81	3	3.7	제주	36	0	0.0
대전	284	13	4.6	합계	9,612	1,013	10.5
대구	343	7	2.0				

3. 지역별 여성변호사 분포 비율

구분	서울	경기북부	인천	경기중앙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합계
수(명)	856	26	30	47	4	3	13	7	11	5	4	4	3	0	1,013
비율(%)	84.5	2.6	2.9	4.6	0.4	0.3	1.3	0.7	1.1	0.5	0.4	0.4	0.3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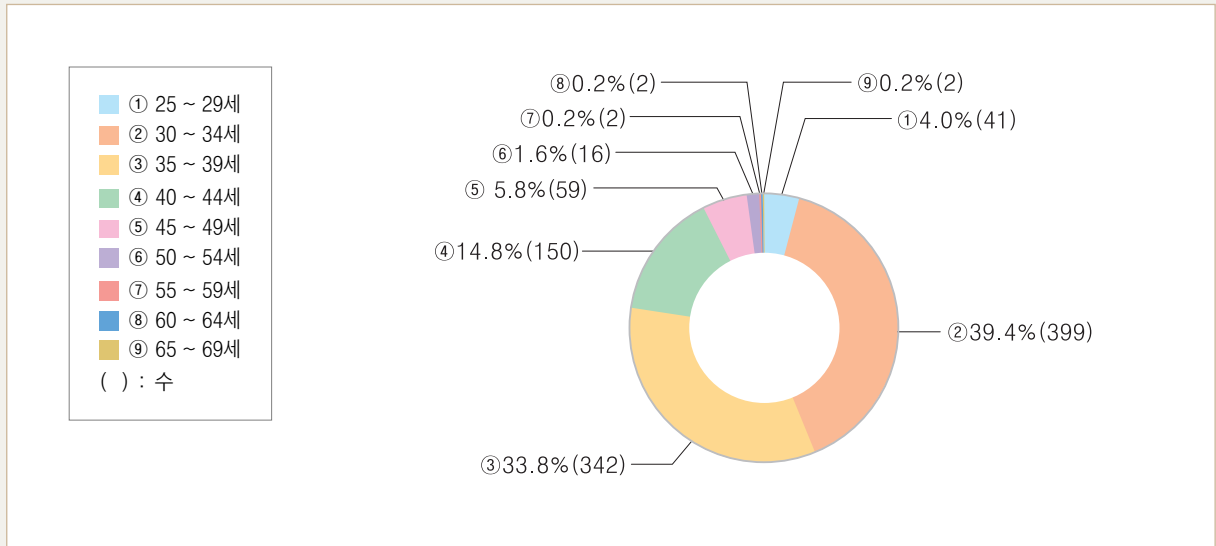


- 전체 변호사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여성변호사도 90% 이상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85% 정도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 제주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전체 변호사 대비 여성변호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으로 약 13%를 차지함.

4. 여성변호사 연령별 구성

[2009년 말 기준 / 총 1,013명]

연령	수	비율(%)	연령	수	비율(%)	연령	수	비율(%)
25~29세	41	4.0	40~44세	150	14.8	55~59세	2	0.2
30~34세	399	39.4	45~49세	59	5.8	60~64세	2	0.2
35~39세	342	33.8	50~54세	16	1.6	65~69세	2	0.2



- 여성변호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30대(전체의 73%)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 40대(약 21%)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5. 남녀별 개업 형태

가. 사무소 형태별 남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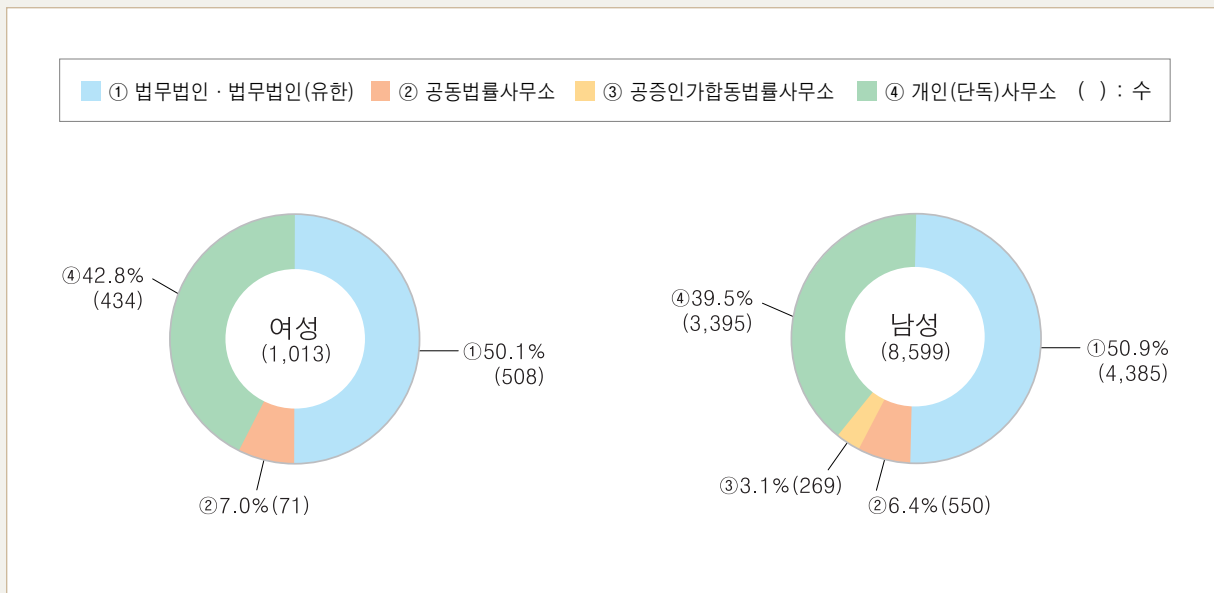
[2009년 말 기준 / 총 9,612명 중 여성 1,013명]

구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공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개인(단독)사무소	
	변호사 수	비율(%)	변호사 수	비율(%)	변호사 수	비율(%)	변호사 수	비율(%)
여	508	10.4	71	11.4	0	0.0	434	11.3
남	4,385	89.6	550	88.6	269	100.0	3,395	88.7
계	4,893	100.0	621	100.0	269	100.0	3,829	100.0

나. 남녀별 개업 형태 비율

[2009년 말 기준 / 총 9,612명 중 여성 1,013명]

구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공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개인(단독)사무소		총계
	변호사 수	비율(%)	변호사 수	비율(%)	변호사 수	비율(%)	변호사 수	비율(%)	
여	508	50.1	71	7.0	0	0.0	434	42.8	1,013
남	4,385	50.9	550	6.4	269	3.1	3,395	39.5	8,599



- 남성변호사의 경우(39.5%)에 비해 여성변호사는 42.8%가 개인(단독)사무소 형태로 개업하고 있어 법무법인 및 공동법률사무소 등의 채용비율이 남성보다 떨어짐.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여성변호사는 없는데, 이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구성요건을 갖춘 여성변호사가 남성변호사에 비해 적고, 2005. 1. 27.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제도가 폐지되어 더 이상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설립되지 않는 것에 기인함.